

실로암 한인 침례 교회 Siloam Korean Baptist Church (SBC)

October 25, 2026, 10:30 a.m.

Ordinary Times (Year A)



Immanuel Baptist Church

69 Saunders Road, Newport News, VA 23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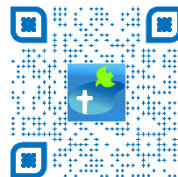
담임목사 장선욱 Senior Pastor Sean Chang, 757-867-8676

seanchang@siloamkbc.org

www.siloamkbc.org

모임 안내 Gatherings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Korean/English) 10:30 am
수요 성경 공부	Wednesday Bible Study (Korean) 8:00 pm via Zoom
	Zoom Meeting ID: 401 799 0718



www.siloamkbc.org

예배 순서 WORSHIP ORDER

예배 인도자 Presider

I 모이기 Gathering

교회 소식 Life of the Church 인도자 Presider
예배 기도 Invocation..... 인도자 Presider
찬양 Let's Praise! 다같이 All Together

H393 오 신실하신 주 Great Is Thy Faithfulness

C1017 내 평생 사는 동안 I Will Sing unto the Lord

C1207 은혜 His Grace

대표 기도 The Prayer of the People 조동천 선교사 Missionary Daniel Cho
신앙 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All Together
삶을 되돌아보기 Time to Reflect 다같이 All Together
평화의 나눔 Sharing Peace 다같이 All Together
중보 기도 Intercessory Prayers 다같이 All Together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다같이 All Together

II 말씀 The Word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다같이 All Together

신명기 Deuteronomy 34:1-12

설교 Serm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모세의 죽음 The Death of Moses

III 화답 Response

선교 보고 및 사역 소개 Mission Report 조동천 선교사 Missionary Daniel Cho
헌금 기도 Offering Prayer 다같이 All Together

IV 파송 Sending

파송 및 축도 Sending Word and Benedicti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교회 소식 THE LIFE OF THE CHURCH

기도 제목 THE PRAYER LIST

- 교회를 위하여
 - 지역 봉사를 감당하는 교회
 -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 선교사들을 위하여
 - 조동천 (캄보디아)
 - 이낙원 (케냐)
 - 우리가 지원하는 아이들: Fabian Kamau Eunice Wanjiku Allysa Wambui Sharlin Akai
- 주위에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
- 주위에 아픈 분과 돌보시는 분들
- 자녀들
- 주위에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
- 여행하는 분들
- 권세자들

THE FIRST LESSON 신명기 DEUTERONOMY 34:1-12

- 1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 2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 3 네겔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 4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 5 이에 여호와와 종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 6 벳브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날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 7 모세가 죽을 때 나이 백이십 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 8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삼십 일을 애곡하니라
- 9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 10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 11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 12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시편 PSALM 90:1-6, 13-17

- 1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 2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 3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 4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 5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 6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 13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 14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 15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 16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 17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 1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 2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 3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 4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 5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 6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 7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 8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1. 본문 함께 살펴보기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한 뒤 반대에 부딪혀 급히 그 도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후 바울의 동기를 의심하고 비방하는 말들이 교회에 들려왔습니다.

2 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돌아봅니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도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합니다(2 절).

본문은 동기(3-4 절) → 태도(5-6 절) → 사랑(7-8 절)으로 흘러갑니다.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의 삶과 함께 전해집니다.

2. 말씀속에 담긴 믿음의 주제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4 절)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기에,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꾸밈없는 정직한 섬김 — 바울은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5 절)고 합니다.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6-7 절). 참된 섬김에는 숨은 계산이 없습니다.

유모 같은 사랑 — 바울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7 절)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습니다(8 절). 복음은 삶을 나누는 사랑 안에서 가장 잘 전해집니다.

3. 우리의 삶과 신앙 돌아보기

우리는 교회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쉽습니다. 봉사하고 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지기도 합니다. 이번 주, 아무도 모르게 한 가지 섬김을 하나님께만 드려 보십시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4 절).

바울은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겪은 뒤에도 멈추지 않았했습니다(2 절).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도 오해와 상처를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난 상처 때문에 닫아 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유모가 아이를 돌보듯, 사랑은 시간과 손길로 표현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외로운 어르신이나 새로 온 가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사람에게 전화하거나 함께 식사하며 삶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것이 말씀을 살아내는 길입니다.

4. 함께 나누기 위한 질문들

1.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어떤 모습일까요?
2. 바울처럼 복음과 함께 "나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5. 마무리 묵상과 공동의 기도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칭찬보다 주님의 기뻐하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시고, 꾸밈없는 정직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유모가 자녀를 돌보듯 서로를 사랑하며, 복음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E GOSPEL 마태복음 MATTHEW 22:34-46

- 34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35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41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42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43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냐
45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46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